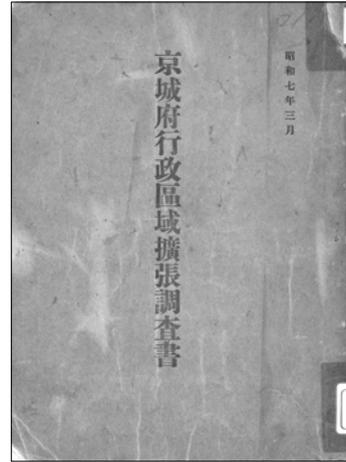


62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查書 경성부 행정구역확장 조사서

1932년 / 경성부 / 168면 / 14.10-11 경 1932

京城府土木事業概要 경성부 토목사업개요

1938년 / 경성부 / 94면 / 14.10-11 경1938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查書(경성부 행정구역 확장 조사서)」는 1932년에 출간한 168면의 보고서다. 편입대상은 한지면(漢芝面), 송인면(崇仁面), 북면(北面), 용강면(龍江面) 및 연희면(延禧面)의 16개 리(里)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우리만치 먼 옛날의 처사처럼 들린다. 이를테면 편입될 곳이 지금의 신당동, 이태원동, 보광동, 동빙고동, 서빙고동 등이며 송인면의 경우는 지금의 신설동이고, 북면은 지금의 흑석동, 본동, 노량진동이며, 용강면은 신공덕동, 공덕동, 아현동이 포함되어 있고, 연희면의 경우는 북아현동이 편입대상이었다.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기초작업이 수십 가지 종류의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아동들의 통학자 수와 토지의 조세등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수로는 1만 4,631호(1931년 말 현재)에 인구는 6만 9,845명과 552만여 평이 경성부로 편입되게 된다.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기초작업이 수십 가지 종류의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아동들의 통학자 수와 토지의 조세등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수로는 1만 4,631호(1931년 말 현재)에 인구는 6만 9,845명과 552만여 평이 경성부로 편입되게 된다.

「京城府土木事業概要(경성부 토목사업개요)」는 1938년에 경성부가 발행한 94면의 일종의 통계집이다. 내용은 1910년~1937년까지 27년 간 실시한 토목사업의 내역이다. 한일합병 이후 1937년까지 연도별 토목사업비(예산)와, 가령 도로의 경우 노선별 공사

비가 전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권말에는 1 : 15,000 지도에 서울의 하수도 개수상황이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수지도도 별기되어 있다. 이 책에는 고산자(古山子) 선생이 그렸다는 ‘수선전도(首善全圖)’가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의 종류별 표준단면도가 첨부되어있다. 이 책에서 특징적이고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도선장(渡船場) 나룻배 요금 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 대인(만 15세 이상)	3전(錢)
• 소인(만 9세~15세까지)	2전
• 인력거	10전
• 빈 인력거	7전
• 소달구지	13전
• 빈 소달구지	10전
• 새끼소달구지	7전
• 짐 실은 우마차	30전
• 자전거	5전
• 자동차	50전
• 4인교	30전
• 오토바이	10전
• 트럭	60전